

초등영재 담당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영재교육 전문성 비교 분석

여상인* · 최남구¹

경인교육대학교 · ¹은지초등학교

Comparative Analysis of Elementary Teachers' Professionalism in Gifted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Personal Variables

Yeo, Sang-Ihn* · Choi, Nam-Gu¹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¹Eunji Elementary School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compare the professionalism of elementary teachers in charge of teaching the science-gifted children, based on their personal variables, such as gender, educational career in normal class and gifted class, training in gifted education, academic degree, etc.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was modified by referring to Choi's survey, and conducted to 98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gender, the average of male teache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average of female teachers in their professionalism in gifted education. Regional difference was found in the teacher's professionalism, however, showed different aspects in the sub-domain. The teachers' professionalism in accordance with the career in education was no difference. In gifted education career, professionalism increased as high career in gifted education, especially, more than three years. As better educated, teachers' professionalism in responsibility and philosophical understanding for gifted education w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teachers'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the degree of training related to gifted education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verall, 'responsibility and philosophical understanding' and 'humanities-oriented quality' for gifted education were not greatly affected by teacher's personal variables in this study. Based on conclusion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ir professionalism in gifted education were discussed.

keywords : professionalism, gifted education, elementary teacher in charge of the scientifically gifted, personal variable

I. 서론

우리나라에서의 영재교육 실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전환점은 2000년의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공포와 이에 따른 2002년의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 교육함으로써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국가의 부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차원에서 일반적 교육환

경에서는 사장되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재능을 충분히 발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조석희, 2004; 한국교육개발원, 2012). 영재교육의 법제화를 토대로 정부는 2003년부터 5년 단위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인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영재교육이 국가 전체의 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 영재교육의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재교육의 도입기에 해당하는 종합계획인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3~2007)', 발전

*교신저자 : 여상인(siyeo@gin.ac.kr)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의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4년 2월 19일 접수, 2014년 4월 5일 수정원고 접수, 2014년 4월 10일 채택

기에 해당하는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을 거쳐 현재 영재교육의 도약기에 해당하는 종합계획인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관련 부처와의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면서 현장의 영재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다(교육부, 2013).

그러나 제1·2차 계획 추진의 성과 분석에서 영재교육기관 및 수혜율, 교원연수 및 프로그램 등의 확대로 영재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제 확립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원 양성단계의 영재교육 전문성 배양과 교원 현직단계의 주기적 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과정 확대 및 외부기관을 활용한 심화전문 연수 기회의 확대를 통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3; 김미숙 등, 2010; 유경재 등, 2012).

영재교육의 질적 향상과 영재교사의 전문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이 교사의 개인변인이듯이(Feldman, 1998), 영재교육의 질도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영재교사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특히, 과학영재는 지적 수준뿐 아니라 감수성도 높기 때문에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영재교사는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수준 높은 영재수업을 할 수 있다(박경희, 서혜애, 2007; 박지은, 이봉우, 2012; 서혜애, 박경희, 2006).

전문성이 있는 영재교사의 기준으로 서혜애와 박경희(2006)는 대학원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여 전공영역에 대한 교과지식과 전문지식,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제시하였다. 또한, 높은 지능과 성취동기, 준비도 등을 갖추고 있어 질 높은 교수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재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다른 연구(박준, 2010; 최남구, 2011)에서도 교직경력이 3~5년 초과되어야 교직에 안정감

과 자신감을 갖고(박준, 2010) 영재교육경력이 3년을 초과한 교사, 석사과정을 이수한 교사, 학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영재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영재학생을 선발하는 절차나 방법, 판별도구, 영재교육 프로그램, 영재교육기관 운영과 현황 등과 같은 연구에 비하여 많지 않다. 영재교사의 전문성 개발 없이는 영재교육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이 없다는 주장(Guskey, 2000)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재교육현장을 고려한 영재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의 정립, 영재교사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등 영재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영재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흡하다고 하겠다.

영재학생들을 지도할 영재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특성에 관한 국외 연구(Bishop, 1968; Davis, 1954; Drews, 1972; Freehill, 1975; Lindsey, 1980)는 많이 이루어진 편이지만 우리나라 영재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영재교사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연구는 과학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재교사의 능력(이화국, 2002), 영재교육과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김홍원 등, 2000),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서혜애 등, 2005) 등이 있지만, 이들 연구에서 제안된 영재교사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경우 문항수가 적거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영재교사의 전문성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편이었다.

김홍원 등(2000)과 서혜애 등(2005)의 연구에서 개발된 영재교사의 전문성 측정도구를 보완하여 최남구(2011)는 우리나라 영재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교사변인에 따른 전문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수가 많지 않아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영재교육전문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최남구, 2011)에서 미흡했던 부분인 영재교사의 개인변인을 조정하고, 각 변인에 따른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초등영재 담당교사

의 영재교육전문성을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라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후속연구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표 1>과 같이 인천과 경기 지역의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사 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여교사(56명)가 남교사(42명)보다 비율이 높고, 최종학력은 학사(57명)가 석사(41명)보다 높았다. 영재교육기관은 인천과 경기의 지역공동체 영재학급이 단위학교의 영재학급으로 많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재교육원(12명)보다 영재학급(86명)에서 영재를 지도하는 영재교사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경력은 교사발달에 대한 여러 연구의 결과(박홍희, 2005, 2009; Eros, 2011; Fessler & Christensen, 1992)에서 예비교사의 단계를 거쳐 현직교사로의 경력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은 교직에 적응하는 단계인 초임기(novice), 6~10년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경험과 수업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수업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장기(competence), 11년~20년은 학교의 각종 보직 교사를 경험하는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수업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단계인 성숙기(accomplishment), 21년 이상은 오랜 경험을 통해 다른 교사 및 학교와 지역 사회에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지도성을 갖춘 원숙기(leadership) 등으로 교사의 발달 단계(teacher's career stage)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경력에 따른 교사 집단을 선행 연구를 토대로 구분하되, 교육경력이 21년 이상인 교사가 적어 15년을 기준으로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영재교육경력은 3년 전후를 경계로 영재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연구(최남구, 2011)를 토대로 영재교육 초보자, 영재교육 전문가, 그리고 그 경계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경계 그룹에 속하는 영재교사가 많아 경계 그룹은

다시 2년을 기준으로 다시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영재교육연수를 경험한 정도는 대부분이 기본연수(72명, 73.5%)를 받았고, 연수를 받지 않고 가르치는 교사(14명)와 심화연수 이상을 받은 교사(12명)는 그 수가 적었지만 영재교육연수에 따른 전문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표 1. 연구 대상의 개인변인별 분포(N, %) (N=98)

| 개인변인 | 구분 | 빈도(명, %) |
|--------|---------|-----------|
| 성별 | 남 | 42 (42.9) |
| | 여 | 56 (57.1) |
| 지역 | 인천 | 63 (64.3) |
| | 경기 | 35 (35.7) |
| 교육경력 | 5년 미만 | 18 (18.4) |
| | 5년~10년 | 31 (31.6) |
| | 10년~15년 | 26 (26.5) |
| | 15년 이상 | 23 (23.5) |
| 영재교사경력 | 1년 이하 | 40 (40.8) |
| | 1년~2년 | 27 (27.6) |
| | 2년~3년 | 14 (14.3) |
| | 3년 초과 | 17 (17.3) |
| 최종학력 | 학사 | 57 (58.2) |
| | 석사 | 41 (41.8) |
| 영재교육연수 | 이수 안함 | 14 (14.3) |
| | 기본연수 | 72 (73.5) |
| | 심화연수 이상 | 12 (12.2) |

2. 검사 도구

영재교육 담당교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한 연구와 개발된 설문도구(김홍원 등, 2000; Bishop, 1968; Chan, 2001; Davis, 1954; Drews, 1972; Freehill, 1975; Lindsey, 1980)를 토대로 번안, 수정, 보완하여 영재교육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검사 도구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명료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명의 영재교육 전문가와 과학교육을 전

표 2. 영재교육전문성 검사 도구의 영역별 문항수 및 신뢰도

| 하위영역 | 문항수 | Cronbach α | |
|-------------|---|-------------------|------|
|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 4 | 0.64 | |
| 전문적 자질 | 해당 전공 영역에서 내용전문성과 그 교수 능력(교과내용 전문성) | 6 | 0.84 |
| |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자질과 수업능력(창의적 수업능력) | 5 | 0.77 |
| | 영재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그 적용 능력(영재교육지식 및 적용) | 10 | 0.83 |
| 인성적 자질 | 9 | 0.79 | |

공하고 있는 7명의 영재교사에게 문항 검토를 의뢰하였다. 예비 검사를 통해 수정된 최종 검사 도구는 <표 2>와 같이 최남구(2011)의 검사도구에서 연구수행능력 1문항을 제외한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4문항), 전문적 자질(21문항), 인성적 자질(9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부록). 이중 전문적 자질은 다시 해당 전공 영역에서 내용전문성과 그 교수능력(이하 ‘교과내용 전문성’)(6문항),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자질과 수업능력(이하 ‘창의적 수업능력’)(5문항), 영재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그 적용능력(이하 ‘영재교육지식 및 적용’)(10문항)으로 나누어진다. 하위영역에 대한 문항신뢰도(Cronbach α)는 0.64~0.84이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단계 평정척도로 되어 있고, 모두 긍정적인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검사 도구는 인천, 경기지역에서 영재를 지도하는 영재교사에게 방문 및 e-메일로 총 120부를 배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완전하게 작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98부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으며,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교사의 개인변인에서 성별, 최종학력, 영재교육기관은 2개의 집단, 영재교육연수 여부는 3개의 집단, 일반교육

경력과 영재교육경력은 4개의 집단으로 구획하였기에 분석 방법으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ANOVA를 실시하기 전에 분산의 등분산성에 대한 가정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교사의 개인변인 중 성별에서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에서만 등분산성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나머지 모든 개인변인별 영재교육전문성의 하위영역에서는 분산의 등분산성이 성립하였다. 등분산성이 성립하지 않는 성별에서의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에서 성별간 점수 차이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별도로 비모수통계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통계를 ANOVA로 처리하였다. 세 집단 이상인 개인변인(교육경력, 영재교사경력, 영재교육연수)에서는 Scheffé를 사후검증으로 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성별에 따른 영재교육 전문성 비교

성별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영재교육 전문성의 하위 영역인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에서 남교사보다 여교사의 평균이 높고, 인성적 자질에서는 여교사보다 남교사의 평균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 3. 성별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비교

(N=98)

| 하위 영역 | Mean(SD) | | F | p | |
|-------------|-------------|-----------|-----------|-------|-------|
| | 남(n=42) | 여(n=56) | | | |
|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 4.12(.57) | 4.21(.40) | .783 | .378 | |
| 전문적 자질 | 교과내용 전문성 | 4.02(.53) | 3.83(.46) | 3.315 | .072 |
| | 창의적 수업능력 | 4.16(.45) | 3.96(.46) | 4.831 | .030* |
| | 영재교육지식 및 적용 | 3.79(.48) | 3.60(.47) | 3.595 | .061 |
| | 소계 | 3.94(.41) | 3.75(.39) | 5.356 | .023* |
| 인성적 자질 | 4.05(.45) | 3.89(.45) | 2.896 | .092 | |

* $p < .05$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문적 자질에서는 남교사의 평균(3.94)이 여교사의 평균(3.7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p < .05$)하게 높았으며, 특히 창의적 수업능력에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자질의 하위 영역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자질과 수업능력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높았지만, 다른 하위 영역에서는 남교사의 평균이 여교사의 평균보다 높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전문적 자질에서의 성별에 따른 결과는 영재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에서 남교사에 비하여 여교사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이미순, 2010), 영재수업에서 남교사에 비하여 여교사가 더 큰 과학교수불안을 경험하고(김상일, 여상인, 2014), 과학지식의 이해와 적용에서 여교사가 더 큰 교수불안을 경험한다(장은진, 권치순, 2010)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과학교과 내용의 이해와 적용 능력에서는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하여 전문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인성적 자질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영재담당 교원의 역할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 영재교육 철학 및 목적, 영재수업에 대한 기대효능감에서 남교사에 비하여 여교사가 더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이도현, 여상인, 2013)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2. 근무지역에 따른 영재교육 전문성 비교

근무지역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과 마찬가지로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인성적 자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적 자질에서는 인천지역 교사의 평균(3.90)이 경기지역 교사의 평균(3.7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p < .05$)하게 높았다.

전문적 자질의 하위 영역 중 ‘해당 전공 영역에서 내용전문성과 그 교수능력’에서는 경기지역 교사가,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자질과 수업능력’에서는 인천지역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하위 영역에서는 인천지역 교사의 평균이 경기지역 교사의 평균보다 높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영재교사의 전문성에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범위의 확대, 심층 면담, 교사의 배경변인에 대한 조사, 교육청의 영재교육에 대한 비전 등 전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은 두 지역 교육청의 영재교육 현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시한 것이다.

인천의 경우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영재교육기관을 지역공동영재학급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단위학교영재학급으로 전환하면서 초·중·고등학교 전체 대비 영재교육 대상자의 비율이 전국

표 4. 근무지역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비교

(N=98)

| 하위 영역 | Mean(SD) | | F | p | |
|-------------|--------------|--------------|-----------|-------|-------|
| | 인천 (n=63) | 경기 (n=35) | | | |
|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 4.16(.48) | 4.18(.48) | .025 | .876 | |
| 전문적 자질 | 교과내용 전문성 | 3.40(.48) | 3.76(.49) | 5.501 | .021* |
| | 창의적 수업능력 | 4.13(.43) | 3.89(.48) | 6.749 | .011* |
| | 영재교육지식 및 적용 | 3.73(.52) | 3.59(.39) | 1.163 | .187 |
| | 소계 | 3.90(.42) | 3.71(.36) | 5.175 | .025* |
| 인성적 자질 | 4.02(.46) | 3.85(.43) | 3.082 | .082 | |

* $p < .05$

평균인 2.2%보다 높은 5.6%인 반면, 경기의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단위학교영재학급으로 전환하면서 영재교육 대상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1.5%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또한, 두 지역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면담에 의하면, 영재교육 대상자의 비율이 증가한 인천의 경우 영재교사의 수요가 많아지고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경기의 경우 영재교육기관이 줄어들면서 교육청의 영재교육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영재교사의 관심이 낮아졌다고 한다. 근무지역에 따라 영재교육 전문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근무지역별 연구대상의 영재교육경력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영재교육경력이 2년 미만인 초임 수준의 영재교사의 비율이 인천(40%)보다 경기(43%)가 높

은 점, 영재교육 전문성과 관련이 높은 최종학력에서 학사 이하가 인천(51%)보다 경기(66%)가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근무지역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지지와 지원, 방향과 철학 등을 설정하더라도 지역교육청 차원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행·재정적인 지원에 따라 영재교사의 전문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교육경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비교

교육경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영재교육 전문성

표 5. 교육경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 비교[†]

(N=98)

| 하위 영역 | Mean(SD) | | | | F | p | |
|-------------|-----------------|-----------------|------------------|------------------|-----------|-------|------|
| | 5년 이하 (n=18) | 5~10년 (n=31) | 10~15년 (n=26) | 15년 이상 (n=23) | | | |
|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 4.22(.45) | 4.19(.41) | 4.08(.58) | 4.20(.47) | .441 | .725 | |
| 전문적 자질 | 교과내용 전문성 | 3.78(.44) | 4.00(.50) | 3.92(.54) | 3.91(.50) | .620 | .604 |
| | 창의적 수업능력 | 4.02(.46) | 4.04(.42) | 4.09(.44) | 4.02(.57) | .129 | .943 |
| | 영재교육지식 및 적용 | 3.47(.43) | 3.73(.52) | 3.71(.47) | 3.74(.46) | 1.487 | .223 |
| | 소계 | 3.67(.33) | 3.87(.44) | 3.86(.39) | 3.86(.44) | .941 | .424 |
| 인성적 자질 | 3.85(.51) | 3.90(.40) | 3.99(.44) | 4.08(.49) | 1.082 | .361 | |

[†] 사후검증(Scheffé) 결과 모든 하위 영역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발달에 대한 여러 연구의 결과(Eros, 2011; Fessler & Christensen, 1992; 박흥희, 2005, 2009)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단계를 거쳐 현직교사로의 교육경력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인 초임기의 교사에 비하여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은 교사는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하고, 10년 이상이 되면 일반수업 뿐 아니라 영재수업에서도 교육경력에 따른 과학교수불안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김상일, 여상인, 2014). 본 연구 결과에서도 네 집단의 영재교육 전문성 평균이 4점 내외로 높아 교사들은 영재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이 5년 이하인 집단과 5년 이상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교육경력이 비록 5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18명 중 14명(78%)이 기초연수 이상의 영재교육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 향상에 영재교육연수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타당한 해석을 위해서는 영재교육 전문성과 영재교육연수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심층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영재교육경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비교

영재교육경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

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영재교육 전문성의 하위 영역인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수준($p < .05$)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후 검증(Scheffé)에서 영재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교사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영재교육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자질의 하위 영역 중 ‘해당 전공 영역에서 내용전문성과 그 교수능력’과 ‘영재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그 적용능력’에서 모두 영재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집단이 3년 이하인 모든 집단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으며, 3년 이하인 세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교육경력은 3년 전후를 경계로 영재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연구(최남구, 2011), 영재교육경력이 5~6년인 영재교사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영재수업에 활용하는 능력이 높다는 연구(여상인, 진현숙, 2012)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으나, 영재교육경력 2년을 경계로도 영재교육 전문성이 차이가 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다. 영재수업에서의 과학교수 불안 연구(김상일, 여상인, 2014)에서도 영재교육경력이 4년 이상인 집단과 그 이하의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이하의 집단(2~4년)은 경계 그룹으로 나타난 결과처럼 영재교육에서 어느

표 6. 영재교육경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비교

(N=98)

| 하위 영역 | Mean(SD) | | | | F | p | Scheffé | |
|-------------|-----------------|----------------|----------------|-----------------|-----------|-------|---------|---------|
| | 1년 이하 (n=40) | 1~2년 (n=27) | 2~3년 (n=14) | 3년 이상 (n=17) | | | | |
|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 4.18(.50) | 4.14(.45) | 3.96(.54) | 4.35(.37) | 1.787 | .155 | - | |
| 전문적 자질 | 교과내용 전문성 | 3.83(.44) | 3.64(.50) | 3.68(.57) | 4.25(.41) | 4.580 | .005* | a,b,c<d |
| | 창의적 수업능력 | 3.40(.48) | 4.05(.42) | 3.99(.45) | 4.20(.52) | .857 | .467 | - |
| | 영재교육지식/적용 | 3.54(.40) | 3.72(.49) | 3.66(.46) | 3.96(.56) | 3.469 | .019* | a,b,c<d |
| | 소계 | 3.73(.33) | 3.86(.41) | 3.74(.42) | 4.10(.46) | 3.943 | .011* | a,b,c<d |
| 인성적 자질 | 3.86(.45) | 4.07(.48) | 3.81(.32) | 4.14(.47) | 2.775 | .046* | - | |

* $p < .05$, a=1년 이하, b=1~2년, c=2~3년, d=3년 이상

표 7. 최종학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 비교

(N=98)

| 하위 영역 | Mean(SD) | | F | p | |
|-------------|-----------|-----------|-----------|--------|--------|
| | 학사 (n=57) | 석사 (n=41) | | | |
|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 4.15(.49) | 4.19(.46) | .131 | .718 | |
| 전문적 자질 | 교과내용 전문성 | 3.81(.47) | 4.06(.50) | 6.363 | .013* |
| | 창의적 수업능력 | 4.04(.43) | 4.06(.52) | .060 | .807 |
| | 영재교육지식/적용 | 3.57(.41) | 3.83(.53) | 7.143 | .009** |
| | 소계 | 3.75(.35) | 3.95(.46) | 5.947 | .017* |
| 인성적 자질 | 3.85(.38) | 4.11(.51) | 7.931 | .006** | |

* $p < .05$, ** $p < .01$

정도의 전문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영재교육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최종학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비교

최종학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영재교육 전문성의 하위 영역인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에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각각 $p < .05$, $p < .01$)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문적 자질의 하위 영역에서는 영재교육경력과 마찬가지로 ‘해당 전공 영역에서 내용전문성과 그 교수능력’과 ‘영재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그 적용능력’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평균이 학사 학위만 가진 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이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교수방법적인 기술은 연수를 통하여 쉽게 개선, 향상될 수 있지만, 교사가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 갖게 되었던 개인적인 관점이나 신념, 의식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연구(Kagan, 1992)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대학원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여 전공영역에 대한 교과지식과 전문지식,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영재교육 전문성 있다는 연구(서혜애, 박경희, 2006)와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구성주의적

신념을 가진다는 연구(전혜린, 여상인, 2011)처럼 하위 영역인 전문적 자질이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성이 높은 것은 해당 교과에 대한 내용학적 전문성과 그 지도 능력, 영재교육과 관련된 지식과 그 적용 등이 전문교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 영재교육연수 정도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 비교

영재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이수한 정도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영재교육 전문성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심화연수를 받은 집단의 평균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연수 이수에 따른 과학영재수업에서의 과학교수불안이 연수를 받은 집단의 평균이 연수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김상일, 여상인(20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과학교수불안이 유의하게 줄어든다는 연구(황선미, 2011)에서도 연수 경험이 3회 이상인 경우에만 유의하게 과학불안이 낮아지는 것처럼 영재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기 위한 최소한의 연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교육부, 2013).

표 8. 영재교육연수 정도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 비교[†]

(N=98)

| 하위 영역 | Mean(SD) | | | F | p |
|--------------|---------------|----------------|----------------|-------|------|
| | 미이수 (n=14) | 기초연수 (n=72) | 심화연수 (n=12) | | |
|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 4.04(.43) | 4.12(.49) | 4.27(.46) | .826 | .441 |
| 교과내용 전문성 | 3.85(.46) | 3.89(.50) | 4.13(.50) | 1.315 | .273 |
| 전문적 창의적 수업능력 | 3.91(.55) | 4.05(.45) | 4.18(.46) | 1.085 | .342 |
| 자질 영재교육지식/적용 | 3.61(.36) | 3.67(.49) | 3.80(.61) | .504 | .606 |
| 소계 | 3.75(.31) | 3.82(.41) | 3.98(.49) | 1.122 | .330 |
| 인성적 자질 | 3.79(.38) | 3.99(.46) | 3.96(.51) | 1.192 | .308 |

[†] 사후검증(Scheffé) 결과 모든 하위 영역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재를 지도하는 영재교사의 개인변인인 성별, 근무지역, 교육경력, 영재교육경력, 최종학력, 영재교육연수의 이수 정도에 따라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에서는 하위 영역 중 전문적 자질에서 남교사의 평균이 여교사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자질과 수업능력 측면에서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높았다. 근무지역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에서는 지역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하위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근무지역에 따라 영재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해당 교육청의 영재교육에 대한 비전과 열정, 영재교사의 선발, 영재교사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지역에 따른 영재교사의 전문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경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은 5년 이하의 초임교사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영재교육연수를 이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

문성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경력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영재교사경력에 따른 전문성에서도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영재교육 전문성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그 중에서 전문적 자질의 하위 영역인 ‘해당 전공 영역에서 내용전문성과 그 교수능력’과 ‘영재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그 적용능력’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은 일반 교육경력보다 영재교육경력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며, 특히 최소한 유능한 영재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영재교육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재교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영재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 연수 경험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영재를 지도한 경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종학력에 따른 영재교육 전문성은 대학원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여 전공영역에 대한 교과지식과 전문지식,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기에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에서 유의하게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이수한 정도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 비교에서는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과학교수불안이 줄어들며, 특히, 연수 경험이 3회 이상일 때 매우 유의하게 과학불안이 낮아진다는 연구(황선미, 2011)처럼,

본 연구에서도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영재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기 위한 최소한의 연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재교사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기초연수, 심화연수, 전문연수, 리더십연수 등으로 심화되는 영재교육 연수과정에서 유의하게 영재교육 전문성을 높이는 단계가 어떤 연수인지, 연수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영재교육 전문성의 하위 영역인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과 ‘인성적 자질’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사의 개인변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하위 영역의 전문성은 교사가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 갖게 되었던 개인적인 관점이나 신념, 의식 등은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Kagan, 1992). 그러나 전문성의 하위 영역인 전문적 자질은 영재교육경력이 늘고 영재교육연수를 받으면서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개인변인별 영재교육 전문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의 개인변인이 영재교육 전문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 또는 구조방정식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인변인별로도 충분한 연구대상을 포집하고, 지역적으로도 확대하여 영재교육 전문성에 대한 비교를 좀 더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3).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 재육성을 위한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김미숙, 이미경, 강병직, 김영아, 김인순, 박지은, 서예원, 유경재, 이희원, 전경남, 서정연, 김아름, 기정연, 박지희, 이석영, 이정희, 정경란 (2010). 한국의 영재교육: 영재교육 현황과 국가 표준 정립.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상일, 여상인 (2014). 교사변인에 따른 초등과학 영재교사의 일반학급과 영재학급에서의 과학 교수불안 분석. 초등과학교육, 33(1), 56-68.
- 김홍원, 조석희, 이윤식, 박주상 (2000). 영재교육 담당 교원 양성 및 임용 방안 연구 (CR2000-1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경희, 서혜애 (2007). 영재교육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 탐색 연구. 영재교육연구, 17(1), 77-98.
- 박 준 (2010). 임상장학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 이봉우 (2012). 과학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에 대한 인식. 교과교육학연구, 16(2), 587-601.
- 박홍희 (2005). 교사의 발달 단계에 기초한 연수를 통한 경력개발-HRD 관점에서. 교육연구논총(충남대학교), 26(2), 1-19.
- 박홍희 (2009). 교사의 생애발달 주기를 고려한 교사평가 연구. 교육연구논총(충남대학교), 30(2), 1-25.
- 서혜애 (2010). 중학교 과학영재교육 교사 전문성에 대한 질적 연구. 교사교육연구 49(2), 171-193.
- 서혜애, 박경희 (2006). 영재교육 수업 모범사례 연구(CR 2006-5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서혜애, 박경희, VanTassei-Baska. J. (2005). 영재교육 교원 전문성 계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여상인, 진현숙 (2012). 과학영재 교수방법에 대한 초등과학 영재교사의 지식에 대한 사례연구. 과학교육연구지, 36(1), 94-105.
- 유경재, 이경숙, 서혜애, 김수겸, 신민, 김태영 (2012). 영재교육과정 운영지침개발연구(1)-과학영재교유과정을 중심으로 (CE 2012-5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도현, 여상인 (2013). 영재담당교원의 개인 변인별 직무스트레스 분석. 교사교육연구, 52(3), 545-558.
- 이미순 (2010). 영재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재교육 지속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 구, 27(3), 419-436.
- 이화국 (2002). 한·중·일 과학교육과정 쟁점과 과제. *과학교육* 39(2), 36-37.
- 장은진, 권치순 (2010). 과학과 탐구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아 개념과 교수 불안. *초등과학교육*, 29(2), 155-165.
- 전혜린, 여상인 (2011). 초등과학 영재교사와 일반 교사의 과학교육에 대한 신념 비교. *과학교육연구지*, 35(2), 240-249.
- 조석희 (2004). 영재교육백서 2004 (RM 2004-6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남구 (2011). 영재담당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12). 영재교육 통계연보.
- 황선미 (2011). 초등학교 초임교사들의 과학수업에 대한 과학불안 및 태도 인식 조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ishop, W. (1968). Successful teachers of the gifted. *Exceptional Children*, 34, 317-325.
- Chan, D. W. (2001)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ies of teachers of gifted learners: The Hong Kong teacher perspective. *Roeper Review*, 23(4), 197-202.
- Davis, N. (1954). Teachers of the gifted.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 221-224.
- Drews, E. M. (1972). *Learning together: How to foster creativity, self-fulfillment, and social awareness in today's students and teach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Eros, J. (2011). The career cycle and the second stage of teaching: Implication for policy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rts Educational Policy Review*, 112, 65-70.
- Feldman, S. (1998). Teacher quality and professional unionism. In *Shaping the Profession that Shapes the Future*. Speeches from the AFT/NEA(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on Teacher Quality.
- Fessler, R. & Christensen, J. C. (1992). The teacher career cycle: Understanding and guiding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Freehill, M. (1975). Teachers for the gifted. In B. Boston (ed.), *A Resource Manual of Information for Educating the Gifted and Talented*, Reston, VA: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Guskey, T. R. (2000). *Evaluating professional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Corwin.
- Kagan, D. M. (1992). Implication of research on teacher belief. *Educational Psychologist*. 27(1), 65-90.
- Lindsey, M. (1980). *Training teachers of the gifted and talented*. NY: Teachers College Press.

국 문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과학영재를 담당하는 영재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영재교육 전문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교사의 개인변인은 성별, 근무지역, 교육경력, 영재교사경력, 최종학력, 영재교육 직무연수의 정도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초등과학영재를 지도하는 영재교사 98명이며, 영재교육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최남구(2011)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사용하였다. 영재교육 전문성의 하위 영역은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전문적 자질’, ‘인성적 자질’이며, 전문적 자질은 다시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인변인에 따른 영재교육 전문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는 전문적 자질에

서 남교사의 평균이 여교사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지역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에서는 지역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하위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른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재교육경력에서는 경력이 3년 이상은 되어야 전문성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에서 유의하게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이수한 정도에 따른 영재교사

의 영재교육 전문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수를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평균은 높았다. 전체적으로 영재교육 전문성의 하위 영역인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과 ‘인성적 자질’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사의 개인변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주요어 : 영재교육, 전문성, 초등과학 영재교사, 개인변인

부록 : 영재담당교사의 전문성 측정 설문 문항

1.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4문항)

- 나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고자 한다.
- 영재교육은 개인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영재교육은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영재교육을 하는 교사는 영재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전문적 자질 (21문항)

(1) 해당 전공 영역에서 내용전문성과 그 교수능력 (교과내용 전문성) (6문항)

- 내가 담당하고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해 알고 있다.
-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탐구하고 발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나는 학생의 욕구에 따라 지도를 달리할 수 있다.
- 나는 수업의 적합성과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나는 영재 학생들에게 고도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가르친다.

(2)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자질과 수업능력 (창의적 수업능력) (5문항)

- 나는 창의적이다.
- 나는 개방적이다.

- 나는 융통성이 있다.
- 나는 영재수업을 할 때 자유롭고 도전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 나는 영재학생들의 창의적 행동을 좋아하고 그런 행동이 나왔을 경우 격려하고 강화한다.

(3) 영재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그 적용능력 (영재교육지식 및 적용) (10문항)

- 나는 영재성의 개념을 알고 있다.
-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영재 학습자를 선발하는데 표준화된 검사 점수가 갖는 한계를 알고 있으며, 그 대안적인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나는 어떤 학생이 영재성이 있고 재능이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다.
- 나는 영재 아동의 특성과 그들의 사회적, 정서적, 교육적 욕구를 이해한다.
- 나는 영재 교육과정개발 능력이 있다.
- 나는 영재 학생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학습 보조수단을 선택하고, 구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소집단 토의, 학생의 특정 중요과업 참여, 가치분류와 같은 학생의 자아개념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나는 영재 학생이나 재능 있는 학생과 상담하는 기술이 있다.
- 나는 학생, 교사, 행정 관리자,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래포(Rapport)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영재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인성적 자질 (9문항)

- 나는 영재의 아동발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 나는 영재 학생을 좋아한다.
- 나는 영재교사로서 유머감각이 있다.
- 나는 맡고 있는 학과분야에 능력이 있다.
- 나는 내가 맡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발전과 관련된 정보습득을 잘하고 있다.

- 나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영재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
- 나는 영재 학생들에게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용, 사랑, 도덕성을 길러줄 수 있다.
- 나는 영재 학생들에게 사회적, 국가적, 인류적 연대감과 책임 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
- 나는 영재교육과 주제에 대해 열정이 있다.